

<번역 논문>

성육신으로서의 성서 번역 — 형식과 의미를 통한 변화의 힘 —

말론 위네트(Marlon Winedt)*

장양미 번역**

1. 서론

성서 번역의 오랜 역사에서 번역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의사소통의 불일치에 이른 경우들을 볼 수 있다. 이는 대개 내용에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형식과 의미가 잘 융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 실례로 잉카 제국의 아타우알파(Atahualpa) 황제의 일화를 들 수 있다. 황제는 성서가 그에게 이야기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책에 귀를 갖다 대었다. 그러고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잖아!”라고 외치며 성서를 바닥에 내던졌다. 말 그대로 성서를 거부한 것이다. 우리는 책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 이 잉카인의 순진함과 아둔함에 미소 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대신 스페인어가 보편적이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특정 언어로 인쇄된 책과 동일하다는 순진한 가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정복자들(conquistadores)¹⁾의 자민족 중심주

* Vrije Universiteit Amsterdam에서 성서번역학/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세계성서공회연합회 글로벌 번역 자문위원. mwinedt@biblesocieties.org. Marlon Winedt, “Bible Translation as Incarnation of the Word of God: Transformational Power through Form and Meaning”, *The Bible Translator* 72:2 (2021), 220-240.

**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대한성서공회 성경번역연구소 연구원. ymchang119@gmai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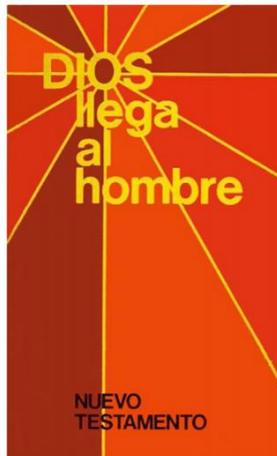
1) [역주] 콩키스타도르(conquistadores): ‘정복자’라는 뜻으로, 16세기에 중남미를 침입한 에스파냐인을 이르는 말. 잉카-아스테카 문명을 파괴하고 원주민을 대량으로 학살하였다. 네이버 국어사전, “콩키스타도르”, <https://ko.dict.naver.com> (2022.07.29.).

의와 아둔함에서 출발해 보자. 더욱이 불과 500년 후에 우리는 아이패드, 노트북 컴퓨터, 라디오, 그 밖에 다른 청각 장치들을 귀에 대고서 이것들이 정말로 우리에게 이야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문제는 형식이다. 정복자들이 특정 청중을 위해 잘못된 매체를 사용했다는 말이다. 이것은 수 세기 동안 계속해서 반복되는 문제이다.

<그림 1> 1534년작인 이 목판화에서 아타우알파와 황제가 가마에 앉아 수사 발베르데(Vincente de Valverde)로부터 성서 한 권을 받고 있다(Xerez 1534).



<그림 2> 역동적 동등성에 기초한 최초의 스페인어 신약성서 번역본 *Dios llega al hombre*(하나님이 인간에게 오신다)의 표지. 이후 완전한 성서는 *Dios Habla Hoy*(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로 불리게 되었다.



성서가 공용 스페인어 역본인 *Dios Habla Hoy*(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다)로 출간되었을 때, 아메리카 대륙의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거부했다. 이 성서는 새로운 유형의 번역본으로 표지가 화려했으며 성서처럼 보이지 않았다(참조, 그림 2). 그리고 가톨릭 교인들을 위해 평행 편집(parallel edition)을 하여 제2정경(외경)을 정경의 일부로 포함시켰다. 이것이 복음주의 세계의 믿음의 공동체들의 심기를 거슬렀다. 그들이 보기에 이는 성서의 정경 범위를 위반한 것이었다.²⁾ 그중 일부는 레이나-발레라역본(Reina-Valera, 1602)³⁾에 이 책들이 포함되었다—비록 중간이 아니라 끝에 포함시켰지만—는 사실을 잊어버렸다(그리고 더 큰 집단은 이를 전혀 알지 못했다).

기독교는 초기부터 구술(orality)과 구체화된 공연(embodied performance)⁴⁾을 주요한 사회적 동력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기독교의 전파를 결정했다.⁵⁾ 고대 세계에서 필술(writing)이 중요하기는 했지만 대체로 구술(orality)을 보조했다. 복음서에 대한 구술적 표현이 결정적 역할을 했으며, 최종 정경의 문서 형식과 상호작용했다.⁶⁾ 역사적 예수가 갈릴리의 소농들과 아랍어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서가 그리스어로 쓰였다는 사실은,

2) 주류인 로마 가톨릭 교회와 비주류로 성장 중이던 복음주의 교회들 사이의 반감도 이러한 거부에 일조했다.

3) [역주] 레이나(Casiodore de Reina)와 발레라(Cipriano de Valera)가 번역한 스페인어 성서.

4) [역주] 여기서 필자는 공연비평(performance criticism)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성서가 쓰여진 기원후 1세기는 문자 문화가 아니라 구전 문화의 시대였고, 글을 아는 사람이 극소수였기에 성서의 이야기가 전달자, 즉 공연가의 연기를 통해 주로 전달되었다. 이처럼 성서가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공연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이를 연구하는 방법론을 ‘공연비평’이라고 하는데, ‘연행비평’, ‘성서 퍼포먼스 비평’이라는 용어와 혼용되고 있다. 여기서는 performance의 직관적 의미를 살려 performance를 ‘공연’으로 performance criticism을 ‘공연비평’이라고 칭하겠다. 성서학에서 공연비평에 대해서는 참조, 방기민, “성서 퍼포먼스 비평과 성경 번역—제임스 맥시(James A. Maxey)의 연구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47 (2020. 10.), 218-237.

5) 고대 세계에서 구술이 담당했던 역할을 지나치게 단순화하는 경향에 대한 정당한 경고로는 참조, L. W. Hurtado, “Oral Fixation and New Testament Studies? ‘Orality,’ ‘Performance’ and Reading Texts in Early Christianity”, *New Testament Studies* 60 (2014), 321-340; L. W. Hurtado, “Correcting Iverson’s ‘Correction’”, *New Testament Studies* 62:2 (2016), 201-206. 필술(writing)과 구술(orality)의 양분법은 두 양식 간의 ‘공생’과 ‘상호작용’의 개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H. E. Hearon, “The Implications of Orality for Studies of the Biblical Text”, R. A. Horsley, J. A. Draper, and J. M. Foley, *Performing the Gospel: Orality, Memory, and Mark*, Minneapolis: Fortress, 2006, 8-9; H. E. Hearon, “The Interplay between Written and Spoken Word in the Second Testament as Background to the Emergence of Written Gospels”, *Oral Tradition* 25 (2010), 70-74; J. Maxey, *From Orality to Orality: A New Paradigm for Contextual Translation of the Bibl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Eugene, OR: Cascade, 2009), 110; P. J. J. Botha, *Orality and Literacy in Early Christianity*,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5, (Eugene, OR: Cascade, 2012), 23.

6) M. E. Lee and B. B. Scott, *Sound Mapping the New Testament* (Salem, OR: Polebridge, 2009).

번역이 ‘그 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매우 중요했음을 가리킨다. 그에 앞서 유대 디아스포라 공동체가 히브리어 텍스트를 새로운 형식으로 만들려는 열망을 품었고, 그 결과 구약성서를 그리스어로 번역한 칠십인역이 탄생했다. 훨씬 후대에 기독교는 페쉬타역, 콥트역, 구 라틴역과 같은 역본들을 만들었으며, 4세기에는 히에로니무스에 의해 불가타역이 만들어졌다.⁷⁾ 수 세기에 걸친 기독교인들의 이와 같은 행동은 종교적 사용을 위해 특정 언어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번역과 지역화가 복음의 전파에 핵심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각 세대마다 특정 형식의 번역만 맹목적으로 신봉한 나머지 번역된 텍스트의 의미에 참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언어와 번역의 방법론은 다양했을 뿐만 아니라 두루마리의 사용에서 코덱스(codex)⁸⁾의 사용에 이르는 흐름이 있었다. 코덱스가 한 명 또는 그 이상의 필사자의 발명품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코덱스의 보다 폭넓은 수용이 기독교의 전파에 공헌했다.⁹⁾ 그리스-로마에서 서간 장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었으며, 일각에서 서신 전달자들이 공연을 통해 서신을 구현함으로써 생생하게 전달했던 전통에 주목해야 한다. 더욱이 가령 바울서신은 여럿이 함께 썼고 여럿이 함께 들었다는 의미에서 공동 활동을 보여준다(“나 바울과 또 나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로부터 갈라디아에서 부름을 받은 자들에게”, “바울과 디모데로부터 빌립보에 있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사역). 신약성서의 풍부하고 다양한 사본 전통 또한 서로 다른 청중에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변화와 사회문화적 콘텍스트의 변화 과정에서 변형이 발생했음을 보여준다.¹⁰⁾

7) 수 세기 동안 불가타역은 유럽에서 교회를 지배했다. 불가타역의 탄생과 영향에 대한 흥미로운 논문으로는 참조, C. B. Tkacz, “‘Labor Tam Utilis’: The Creation of the Vulgate”, *Vigiliae Christianae* 50:1 (1996), 42-72.

8) [역주] 현대의 책과 비슷한 형태로 양피지 낱장들을 묶어서 표지를 싸던 서양의 책 제작 방식이다.

9) 기독교인들은 매우 일찍부터 코덱스의 시각적 표현에 주목했는데,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참조, J. Lowden, “Early Christian Book as Visual Argument”, W. E. Klingshim and L. Safran, eds., *The Early Christian Book, CUA Studies in Early Christianity*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7), 13-47.

10) E. K. Vearncombe, “On Headaches, Gospel Codices, and the Interpretation of ‘Literate Media’”, W. E. Arnal, et al., eds., *Scribal Practices and Social Structures Among Jesus Adherents: Essays in Honour of John S. Kloppenborg*,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285 (Leuven: Peeters, 2016), 387-404. 예를 들어, 에베소서는 아마 회람 서신으로 여러 교회에서 공연되었을 것이다. 참조, B. M. Metzger,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A Companion Volume to the United Bible Societies’ Greek New Testament (4th Rev. Ed.)*, 2nd edition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성서 번역을 성육신이라는 은유로 바라본다면, 형식과 의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의미가 형성된다는 것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기호현상(semiosis)이란 기호의 틀 내로부터 의미가 구성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은 의사소통(communication)의 지속적인 육화(embodiment)¹¹⁾를 통해 성취된다. 가장 잘 알려지고 전통적인 의사소통 방법 중 하나인 글쓰기 또한 석판 조각술, 종이나 피지 위의 잉크 표시, 인쇄 주형의 사용, 그리고 디지털 기술을 통한 개념들의 육화이다. 한 텍스트가 어떤 매체로 번역되어 바뀔 때마다, 그 의미가 ‘폭발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펙트럼을 통하여 굴절하듯 여러 가지 가능한 해석들이 생겨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매체의 특성 때문에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제한받기도 한다. 각 기호 체계, 즉 각각의 의사소통 기반은 의미 제시의 한 형식을 구성한다(이것은 분석되고 해석되고 추론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언제나 의미의 획득과 상실을 수반하는 의미의 연속성이 있다.¹²⁾

2. 형식과 의미: 신학적-철학적 성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초기 설정값에, 즉 특정 사회의 지배적인 의사소통 환경에 지나치게 집중한 나머지 어느 기호 체계에나 내재한 힘의 역학을 무시한다. 의사소통은 처음부터 **다중양식적(multimodal)**이었으며, 따라서 완전히 ‘순수한’ 시스템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고대의 필사본들은 필사자의 필체, 스크립티오 콘티누아(*scriptio continua*),¹³⁾ 콜라(*cola*)¹⁴⁾에 의한 텍스트의 특별한 구분, 그리고 후대에 섹션(section)과 삽화를 사용함으로써 육화되었다.¹⁵⁾ 번역의 실행과 관련하여 우리가, 특히 교회에서 실제 성서

1994), 532.

11) [역주] 영단어 *embodiment*는 보통 ‘구체화’, ‘구현’, ‘형상화’로 번역되는데, 여기서는 저자가 성서 번역을 성육신에 비유하면서 이를 잘 드러내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단어이므로, 그에 맞게 맥락에 따라 ‘육화’로 번역한다.

12) 수어 번역은 펜과 종이로는 절대 이를 수 없는 삼차원의 형식으로 의미를 표현한다. 그림 속의 색상들과 형태들은 새로운 의미를 표현하거나 낡은 의미를 새로운 방식으로 되살린다. 수학 기호를 사용할 때 언어, 수학 기호, 시각 자료(예, 그래프, 기하학적 형태), 논리적 사고가 결합함으로써 새로운 다중양식적 실체가 형성된다.

13) [역주] 단어와 문장 사이에 공백이 없는 기록 방식이다.

14) [역주] (예배에서의 성경 낭독 등을 위해) 소리와 내용에 따라 운율적으로 기록하는 방식이다.

15) M. E. Lee and B. B. Scott, *Sound Mapping the New Testament* (Salem, OR: Polebridge, 2009), 108-111.

번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종종 시야에서 놓치는 것은, 형식이 우리의 의사소통 방식에 내재되어 있으며 상당히 문화적으로 정의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그 형식에 익숙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의사소통을 촉발시키지만, 타자를 소외시키고 정복자적 정신성의 일부가 될 수도 있다.¹⁶⁾ 이에 대한 증거는 성서 역본 사용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그에 따르면 성서의 원어가 아닌 번역된 언어(예,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가 대화에서 단순한 수단이나 매개체가 되는 대신 주인과 정복자가 된다. 그래서 교인들이 그들의 모국어로 된 새 역본을 보다 널리 사용되는 언어로 된 기존의 역본들과 비교한다.¹⁷⁾ 나아가 이러한 원천 언어들(source languages)의 형식과 구조가 번역 모델이 된다.¹⁸⁾

성서 번역을 성육신이라고 말하고 이를 번역의 은유와 모델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 의미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 성육신은 정신적 형태에서 육체적 형태로의 변형을 뜻하는데, 독재적이고 소외를 일으키는 성육신 개념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따르면, 성육신 은유는 침략, 즉 타자에 대한 정복이 되며, 여기서 타자는 정복되고 시야에서 사라진다. 그러나 성서의 성육신 개념은(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 찬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케노시스(kenosis), 즉 자기 비움의 모델이다. 이는 타자의 진정한 잠재성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타자를 높이고 변화시키기 위해 동등한 인간으로서 희생적으로 그 공간에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기독교는 약함과 체험 안에서 ‘평등성’을 긍정하지만, 언제나 성육신한 자의 죄없음을 확인한다. 그러나 이 은유를 성서 번역에 적용할 때, 우리는 완벽이라는 개념을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것은 이 은유의 중요한 개념적 한계이다. 성서 번역은 어떤 원본의 근사치에 다가갈 뿐¹⁹⁾ 결코 정확

16) 이러한 정신성은 여성, 원주민 공동체, 청각장애인을 주변화한다는 비난을 받는데, 불행하게도 이러한 주변화는 심지어 교회와 초교파 기관 그리고 성서 번역에서도 발생한다.

17) [역주] 여기서 필자는 과거에 영국, 프랑스,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지역에서 사람들이 그들의 모국어보다 현재까지도 공용어로 쓰이고 있는 지배자들의 언어(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를 더 우월한 것으로 여기는 현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것은 아래 각주 18번의 예시에서 더욱 분명해진다.

18) 자마이카 신문 「선데이 글리너」(*Sunday Gleaner*)의 편집장이 받은 편지에는 다음과 같은 공포감이 담겨 있었다. “어째서 어떤 사람들은 모든 것을 통속화하려고 하는 겁니까? … (파트와어[patwa] 역본은) 자마이카인 다수가 훌륭한 영어를 말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꺾었습니다. … 이 멍청이들이 다음에는 무슨 짓을 할까요? 셰익스피어와 밀턴을 파트와어로 번역할까요?” M. Cargill, “The Patois Bible”, *The Sunday Gleaner*, (June 30, 1996), 9A; [역주] 파트와어(patwa)는 자마이카에서 주로 쓰는 영어 방언으로 크리올어(Creole)로도 불린다.

19) 무엇보다도 참조, K. Reiss and H. J. Vermeer,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Niemeyer, 1984); F. Goerling, “Cautions concerning Dynamic

한 사본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성서 번역은 특정 문화 체계와 기호 체계 내에서 수용된 원본을 능가한다.

성서 번역은 번역 언어에서 의미의 잉여를 만들면서 출발점에 가까이 다가간다. 만약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증언하는 성서의 성육신적 재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음을 염두에 둔다면, 신앙 공동체는 여전히 이 역본 또는 저 역본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단언할 수 있다. 결국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나사렛 예수이다. 더욱이 각 매체는 ‘메시지에 살을 입히는’ 다른 유형—그것이 목소리의 억양, 음높이, 음색을 통한 것이든 또는 수어에서 동소(cheremes)²⁰와 비수지 신호²¹의 특징들을 통한 것이든²²—을 요구함으로써 자기 고유의 사회인지적 역학을 불러온다. 이것은 모든 재창조가 의사소통의 의도나 내용에서 동일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성서의 경우 문서 형식이 언제나 주요 대응점(primary point of correspondence)으로 남아 있으리라는 관념이 있다.

2011년 댈러스에서 열린 성서번역학회의 비크만 강의에서(Beekman Lecture at the Bible Translation Conference in Dallas) 맥시(J. Maxey)는 환대를 주요 역학으로 삼는 번역의 은유를 제시했다.²³ 이것은 사실 번역을 문화적 침략이나 ‘탈취’로 볼 수도 있는 ‘정복자-피정복자 패러다임’에서 진일보한 것이다. 그렇다면 번역 과정은 주인과 손님 사이의 관계, 즉 수용 언어와 문화 그리고 원천 언어 사이의 관계, 번역 기관과 선교지 사이의 관계가 된다. 여러 모델 중에서도 주인 모델은 언어와 문화 사이에 나타나는 ‘정복’을 제거하는 생산적 방식이 될 수 있다. 비록 모든 이론적 모델들과 마찬가지로 이론이 아니라 어떤 프로젝트의 번역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모든 동역자들의 태도가 종종 이슈가 되기는 하지만 말이다. 사실 각 은유 또는 모

Equivalence”, *Notes on Translation* 10:3 (1996), 49-57. 괴링(Goerling)은 동등성(equivalence)이 해석되어온 다양한 방식을 매우 이해하기 쉽게 요약하고 있다.

20) ‘동소’(cheremes, 그리스어로는 ‘손’을 뜻하는 ‘케이르’[kheir])는 수어의 기본단위로 구어의 음소에 해당한다. 동소는 신호의 기초 단위로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지만 유의미한 의미론적 단위로 조직될 수 있으며, 나아가 손의 모양, 손의 움직임, 신체와 관련하여 손의 위치처럼 지각적으로 구분 가능한 단위로 설명될 수 있다. 이것이 수어에서 특정 신호를 다른 신호와 구분한다. 요즘에는 수어학에서 ‘음소’(phoneme)라는 용어도 사용된다.

21) [역주] 비수지 신호(non-manual signals)는 손 외에 얼굴 표정 등을 사용하는 수어 표현 방식이다.

22) 청각장애인 문화에서 ‘청각장애의 이점’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것은 청각장애를 청력의 결여로 정의하는 대신 청각장애의 이점에 주목한다. T. K. Holcomb,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308.

23) J. Maxey, “Hostile Hosts and Unruly Guests: Bible Translation as Hospitality and Counterinsurgency” (Dallas, TX: Beekman Lecture presented at the Bible Translation Conference, 2011, <https://map.bloomfire.com>).

텔에는 한계가 있다. 주인 모델의 경우, 환대의 일부 특정 개념들이 숭배의 차원을 내포하며, 이것이 실제로 손님의 의제를 최우선시하는 데까지 이어 지기도 한다. 물론, 번역에 대해 이 은유를 고수하는 사람들은 (자문위원, 번역 기관, 행정 인력과 같은) ‘손님’은 손님으로서 윤리적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고인이 된 청(M. Cheung)의 ‘밀치기’(pushing-hands) 심상은 매우 큰 통찰을 준다. 청의 모델에서 번역은 두 명의 유능한 무도인이 계속해서 서로 밀고 물러서는, 즉 필요할 때는 물러서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밀치는 춤으로 보인다.²⁴⁾ 이처럼 번역은 긴장되면서도 역동적인 작업이다. 번역이라는 실재(reality)는 번역가들이 텍스툼(textum)²⁵⁾을 한 언어와 매체에서 다른 언어와 매체로 옮기면서 창조적으로 다시 쓰고, 다시 이야기하며, 되풀이하는 작업이다. 그 과정에서 어떤 요소를 ‘배신하고’²⁶⁾ 어떤 요소를 고수할지 그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찾는 것, 이것이 번역 작업을 특징짓는다. 우리는 모든 의사소통이 육화된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번역을 육화로 생각해야 한다. 육화된 번역은 단순한 기호 체계로부터 좀 더 복잡한 결과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에 이른다.

3. 다중양식적 관점에서 형식과 의미

우리가 형식과 의미 사이에서 계속 경험하는 긴장은 역사적으로 성서 번역과 번역 일반을 끈질기게 쫓아다녔는데, 그것은 현상계와 존재계를 구분하는 플라톤의 세계관에서 유래했다. 촘스키의 생성문법(generative grammar) 분석의 이상적 목표가 나이다(E. Nida)와 태버(C. Taber)의 <번역의 이론과 실제>(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²⁷⁾ 및 다른 연구서들에서 처음으로 성공적으로 형성된 역동적 동등성 이론의 토대였다. 그러나 상부 구조와 핵심 구조 같은 개념들은 핵심이 사회적 콘텍스트와 대화자들 사이에서 사용된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형식과 의미의 차이 그리고 다양한 기호 체계의 실재를 다루는 뛰어난 보완 방법은 크레스(G. Kress)와 반 리우벤(T.

24) ‘밀치기’, 즉 타수(打手)는 두 명이 함께 하는 비폭력적 무술 연습이다.

25) 텍스툼(textum)은 라틴어로 ‘천’, ‘직물’을 의미하여, 여기서는 신호 체계의 직물이라는 은유로 사용하겠다.

26) 중세 이탈리아에서 “번역은 반역이다”(traduttore traditore)라는 격언이 유래했는데, 이것은 번역자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원천 텍스트를 충실하게 번역하려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현상이다.

27) E. Nida and C. Taber,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van Leeuwen)이 세운 오스트레일리아 다중양식학파에서 유래한다.²⁸⁾ 그들은 실재는 다중양식적이며, 언제라도 다양한 기호 체계를 결합한다고 단언한다. 이러한 기호학적 관점에서 파피루스, 도기 파편, 양피지에 쓰인 고대의 글을 볼 때, 단지 하나의 기호 체계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글쓰기에 사용된 여러 재료들과 사회의 일부로서 필사자의 역할이 모두 사회에 내재되어 있다. 더욱이 글쓰기 그 자체는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인식될 가능성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소리는 글쓰기의 해석학에서 매우 중요하다. 글은 청각 체계의 또 다른 육화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모든 의사소통과 사실상 모든 번역이 다중양식적이다. 다중양식 이론은 우리에게 언어 사용의 실제 사회적 환경에 더 주목해야 할 당위성을 체계적으로 상기시킨다.

만약 우리가 언어를 이해하고 싶다면, 사람들이 언어를 **사용하는(do)** 바로 그 사회적인 콘텍스트 안에서 이해해야 한다. 그것은 두뇌 속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가설 모델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학습하는 것이다.²⁹⁾

여기에는 권력 관계, 사회경제적 구조, 교회 관계, 사회언어학적 역학, 그리고 당연히 매체에 대한 고려가 수반된다. 사람들이 ‘두뇌 밖에서’ 언어를 가지고 무엇을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면, 초점은 자동적으로 여러 형식으로서의 육화로까지 이어진다. 우리는 또한 두뇌가 신체를 통해 자신의 기능과 개념들을 ‘육화’한다고 말할 수 있다.³⁰⁾ 크레스와 반 리우벤이 옹호하는 사회기호학은 장르, 담화, 언어 기능에 대한 할리데이(M. Halliday)와 하산(R. Hasan)의 모델에 바탕을 두고 있다.

28) G. Kress and T. van Leeuwen, *Multimodal Discourse: The Modes and Media of Contemporary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29) I. Moschini, “Interview with Theo van Leeuwen”, *LEA-Lingue e let-terature d’Oriente e d’Occidente* 3 (2014), 204.

30) 필자가 생각하기에 다중양식적 접근법을 옹호한다고 해서 인지언어학과 관련성 이론(relevance theory)이 귀중한 공헌을 한다는 견해를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역주] 관련성 이론 또는 적합성 이론에 대해서는 참조, S. W. Pattemore, “On the Relevance of Translation Theory”, *Review and Expositor* 108 (2011), 263-277//스티븐 패트모어, “관련성 이론에 관하여”, 이두희 역, 「성경원문연구」 40 (2017. 4.), 248-264; R. D. Shaw, et al., “Cognitive Issues in Bible Translation: The Biblical Text in the Context of Human Experience”, *The Bible Translator* 71:1 (2020), 38-56//대니얼 쇼 외, “성서 번역에서 인지적 이슈들—인간 경험의 정황 안에 있는 성서 본문—”, 조재천 역, 「성경원문연구」 48 (2021. 4.), 268.

할리데이는 다양한 언어, ‘장르’, ‘사용역’(registers)³¹⁾에 초점을 맞춘다. 언어는 더 이상 단일한 것, 어디에서나 동일한 것이 아니다. 같은 언어라도 다른 콘텍스트에서는 의미가 다르다. 그렇다. 당신은 ‘그’ 언어를 총자원으로 구성할 수 있지만, 그 자원은 다른 콘텍스트에서 다르게 사용된다.³²⁾

더욱이 할리데이의 담화 이론은 문어(written language)와 구어(spoken language)의 다양한 담화 전략의 기능에 기초하는데, 가령 시각 체계처럼 다른 기호학 체계들에 적용하기 위한 도구를 제공한다.³³⁾ 다중양식적 접근 방법을 통해 우리는 시각 신호와 청각 신호를 그것들의 담화 체계와 관련하여 분석할 수 있다. 서로 다른 기호 체계를 사용하고 질적으로 견고한 기호 간 번역을 생산하는 것은 제이콥슨(R. Jakobson)의 용어에 따르면 서로 다른 의사소통 기반을 아울러 번역을 정의하는 것이다.³⁴⁾ 이것은 (단지 언어만이 아니라) 소리의 문법, 시각 이미지의 문법, 키네시스(몸짓과 다른 움직임)의 문법, 이미지에서 색 사용의 문법 등을 필요로 한다.³⁵⁾ 물론, 우리는 구어 번역에서와 마찬가지로 상식적 차원에서 정확하고 직접적인 번역을 추구하지 않고, 서로 다른 신호 체계 사이에서 근사치를 찾는다. 예컨대 언어와 이미지처럼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기호 체계 사이에서 직접적인 번역³⁶⁾을 추구하지 않는다.³⁷⁾

31) [역주] 계층이나 연령, 지역 등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언어 변이를 가리킨다.

32) I. Moschini, “Interview with Theo van Leeuwen”, 204.

33) M. A. K. Halliday,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1978); M. A. K. Halliday, “Text as Semantic Choice in Social Contexts”, J. W. Jonathan, ed., *Linguistic Studies of Text and Discourse*,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2 (London: Continuum, 2002), 23-81.

34) R. Jakobson,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Reuben Arthur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232-239.

35) 시각적인 것에 대해서는 참조, G. Kress and T. van Leeuwen,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2006); 청각적인 것에 대해서는 참조, T. van Leeuwen, *Speech, Music, Sound* (London: Macmillan, 1999). 다중양식을 비과학적이라고 여기는 언어학자들로부터 일부 반박이 있어 왔지만, 심지어 인지언어학자들도 다중양식을 기꺼이 연구에 포함시키고 적용했다. M. J. P. Sanz, *Multimodality and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Benjamins, 2015).

36) 물론, 관련성 이론에 의해 정의된 ‘직접적 번역’은 사용 가능한 개념일 것이다. “수용 언어 발화는 그것이 완전히 원본의(the original) 맥락에서 원본과 유사하다고 주장할 때에만 원천 언어 발화의 직접적인 번역이다.” E. A. Gutt,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Manchester: St. Jerome, 2000). 예를 들어, 구어와 마찬가지로 수어 번역은 콘텍스트에 대한 청자의 지식에 따라 제공될 수 있는 서로 다른 수준의 의사소통 단서들을 가지고 있다.

37) K. L. O’Halloran, S. Tan, and P. Wignell, “Intersemiotic Translation as Resemiotisation: A

다중양식은 대화자가 융합적인 의사소통 형식들과 관련하여 제시되는 있는 그대로의 실재에 초점을 맞추게 한다. 그것은 사회적 인공물과 사건들의 다중양식적 실재를 강조한다. 따라서 번역에 사용되는 단어뿐만이 아니라 가령 레이아웃, 페이지 프로필, 텍스트 분할이 모두 번역의 일부이다. ‘틀짜기’와 ‘구성’과 같은 기호 작용(semiotic processes)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서로 다른 의사소통 양식들(시각 언어, 청각 언어, 공연 언어 [language in performance], 수어)에서 발견한다. 이러한 기호 간 통유성(semiotic universals)에 대한 지식은 여러 기호 체계를 번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실, 관련성 이론과 인지언어학 같은 다른 현대적 접근방법은 콘텍스트의 중요성을 보여주었다. 사회기호학적 관점에서 보면 형식과 의미가 결합하여 콘텍스트와 텍스트가 된다. 사회적 콘텍스트와 의사소통 양식은 글쓰기, 말하기, 그리기 등과 같은 보다 두드러지는 신호 체계에 비해 결코 엑스트라나 주변부가 아니다. 기호 현상은 이 모든 요소들의 결합을 통해 획득된다. 이 모든 것이 대화자가 좀 더 넓은 의미에서의 ‘언어’를 가지고 이러저러한 일을 하기 위해 사회적 콘텍스트 안에서 사용하는 기호 자원이다. 성서 번역가들은 반 리우벤의 조언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콘텍스트의] 역할은 사회기호학적 접근이라는 바로 그 특성에서 나온다. 만약 당신이 말리노프스키(B. K. Malinowski)에게로 돌아간다면, 텍스트와 콘텍스트의 결합이 관건이다. 콘텍스트는 우리가 재빨리 ‘처리하고’ 텍스트로 돌아갈 수 있는 사소한 것이 아니다. 텍스트가 속한 사건 전체가 전반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회적 실행(social practice)이다.³⁸⁾

이러한 기호학적 분석은 원전(the original)의 개념에도 영향을 끼쳤다. 원전을 단일하고 정적인 실재로 보는 전통적인 개념은 폐기되거나 역사적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의 두뇌와 인간 사회는 의사소통의 어느 시점에서 ‘가짜 원전’(pseudo original) 또는 ‘원전에 대한 작업가설’을 필요로 하는 것 같다. 따라서 성서 번역가는 자신의 지역적 콘텍스트 안에서 무엇이 원전이 될지 정의할 필요가 있다. 달리 표현하자면, 한 문화에서 성서 번역의 개념을 둘러싼 기대들은 무엇인가? 인식론적으로, 신호들을 언급할 때 구분점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고,

Multimodal Perspective”, J. Fontanille, M. Sonzogni, and R. Troqe, eds., *Translating: Signs, Texts, Practices//Traduire: Signes, Pratiques, Textes, Signata: Annales des sémiotiques //Annals of Semiotics* 7 (2016), 201.

38) I. Moschini, “Interview with Theo van Leeuwen”, 208.

어떤 처리도 할 수 없다. ‘원전’이 여러 개이고 역동적이며 다면적이라는 사실이, ‘구성된 원전 또는 원전의 대용물’(constructed or proxy original)이 의사소통을 위해, 과학적 노력을 위해, 그리고 성서 번역을 위해 필요하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는다. 이야기하기, 바꾸어 이야기하기(retelling), 재창조, 반복과 같은 번역의 개념들은 모두 일치점으로 기능하기 위해 선행 사건이나 내용, 또는 기의-기표의 쌍을 요구한다. 교회의 역사는 사람들이 입으로는 어떤 ‘그리스어 또는 히브리어 원천 텍스트’에 경의를 표하면서 사실은 불가타역본(Vulgate), 세공역본(Segond)³⁹⁾, 제임스왕역본(KJV)과 같은 텍스트를 참조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사실, ‘원전’은 구체적인 사회적 콘텍스트 내에서 평가의 기준으로 기능한다.

다중양식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는 것은 이 논문의 목적을 벗어난다. 많은 학자들이 서로 다른 의사소통 매체에 적용하기 위해 할리데이와 하산의 삼차원 격자(three dimensional grid)를 적용하고 확대해 왔다. 그렇다면 관념적 의미, 인간상호적 의미, 텍스트적 의미의 세 가지 측면이 서로 다른 기호 체계에 적용된다.⁴⁰⁾ 오할로란(K. L. O’Halloran), 탠(S. Tan), 위그넬(P. Wignell)은 이 세 차원이 어떻게 사진, 비디오, 수학적 표현에 적용될 수 있는지 좋은 예를 제시하는데, 이것은 성서 번역과 관련하여 많은 가능성을 제공한다.⁴¹⁾ 그들은 연구를 위해 자체적으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사실, ELAN⁴²⁾처럼 잘 알려진 프로그램이 비디오, 오디오, 그리고 다른 특징들을 구체적인 방식으로 분석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역사적

39) 루이스 세공(Louis Segond)이 번역한 프랑스어 성서로 1880년에 출간되었다.

40) 관념적 의미(ideational meaning)는 경험적 의미(세계 경험을 구성한다)와 논리적 의미(세계 안에서 논리적 연계를 만든다)로 이루어져 있다. 인간상호적 의미(interpersonal meaning)는 사회적 관계를 일으키고 세계에 대한 태도를 창조한다. 반면 텍스트적 의미(textual meaning)는 경험적, 논리적, 인간상호적 의미들을 조직한다. M. A. K. Halliday,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1978); M. A. K. Halliday, *Complementarities in Language* (Beijing: Commercial Press, 2008); M. A. K. Halliday and R. Hasan,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Geelong, Victoria: Deakin University Press, 1985).

41) K. L. O’Halloran, S. Tan, and P. Wignell, “Intersemiotic Translation as Resemiotisation: A Multimodal Perspective”, 218-220.

42) ELAN은 언어학적 주석 달기 프로그램(a linguistic annotation program)으로 문자, 오디오, 비디오를 결합할 수 있다. 이것은 수어 번역 분석 또는 무엇보다도 극장 공연이나 무용 공연에 사용된다. Max Planck Institute for Psycholinguistics, The Language Archive, Nijmegen, The Netherlands, <http://archive.mpi.nl/ta/elan>. 참조, H. Sloetjes and P. Wittenburg, “An notation by Category-ELAN and ISO DCR”, N. Calzolari,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LREC)* (European Language Resources Association, 2008), 816-820, <http://www.lrec-conf.org>.

으로 수어 번역 분야에서 여러 팀이 파라텍스트(Paratext: 성서 번역에서 널리 사용되는 컴퓨터 프로그램) 같은 특수 도구가 없어서 ELAN을 사용해 왔다. 시드 컴퍼니(Seed Company)와 아도바 연구소(Adovah Labs)는 VLIS(Visual Language Interpretation System)를 운영하는데, 이것은 수어 번역가들의 작업을 돕기 위해 인공지능을 사용한다.⁴³⁾ 지난 몇 년 간 티센(S. Thiessen, Deaf Bible Society)과 마일스(N. Miles, United Bible Society)는 수어 번역 도구 프로그램을 연구해 왔는데, 이것은 특별히 수어 성서 번역에 적합하게 제작되었다(그림 3). 이 프로그램은 이미 그 유용성이 입증되었으며 전세계에서 여러 팀이 사용하고 있다.

<그림 3> 수어 번역 도구. 누가복음 8장 번역 초안.



4. 변화를 일으키는 문화적 육화: 힘의 역학

성서 번역가들은 구술 번역에서 육화된 번역으로 번역의 개념이 확장되는 것을 경험하고 있다. 우리는 분석적인 것을 사회기호적 측면과 강하게 결합하는 모델이 필요하다. 의사소통의 사회문화적 콘텍스트를 처음부터 진지하게 여기는 다중양식이 필요하다. 성육신적 번역이 형식-의미의 변증법의 실재를 설명할 수 있다면, 새로운 형식을 통해 원천 텍스트에 근접하

43) “VLIS는 혁신적인 하드웨어이자 소프트웨어로 미국 수어를 영어 텍스트로 출력한다. ... 인간적인 요소는 번역에서 결코 제거될 수 없다. 오직 인간만이 영혼을 지니며 하나님의 영광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인공지능은 인간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아닌 개인들이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VLIS 도구와 상호작용할 수 있게 해준다.”(<http://seedcompany.com/stories/seeds-of-innovation>; 이 URL로는 더 이상 텍스트를 사용할 수 없다.)

도록 그 틀을 짜야 한다. 이 형식들은 매체 사용과 사회문화적 콘텍스트와 관련하여 그 질과 수용가능성의 기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맥시(J. Maxey)는 <성서와 고대 매체 사전>(The Dictionary of Bible and Ancient Media)에 실린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번역학의 문화적 전환과 관련된 한 가지 측면은 어떻게 번역이 비대칭적 권력 관계와 관련되는가에 대한 인식이다. 대개 번역은 역사적으로 억압적인 식민주의적 사고방식의 일부로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적 전환기에 번역학이 탈식민주의 연구의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초점들, 정체성, 힘의 결합은 번역가가 더 이상 원천 텍스트와 대상 텍스트 사이에서 중립적 연락책으로 여겨질 수 없으며, 오히려 문화적 중재자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강조한다.⁴⁴⁾

사실, 인쇄 매체와 쓰기의 우위가 여러 문화권에서 의사소통의 공연 중심성에 해를 끼쳐 왔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서양 교회와 역사적으로 그 일부인 우리 모두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쓰기라는 형식이 프로테스탄트 운동의 중심이 되었다. 따라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쇄된 책과 동일시했다. 이러한 우위는 필자가 속한 카리브해의 문화적 환경이라는 구체적 경우에서도 볼 수 있다. 인쇄와 쓰기의 우위가 카리브해 교회들을 지배해 왔는데, ‘권위가 있다’고 여겨지는 역본(들)의 구성, 색상, 언어가 교회 콘텍스트와 그 너머에서 크리올어(Creole)의 사용을 억누를 정도였다.⁴⁵⁾ 일부 집단에서는 문화에 뿌리박은 내레이터나 공연가가 아니라 문필가를 이상적인 목사로 여겼다. 게다가 종종 스토리텔링을 통해 표현되는 여성의 목소리는 이처럼 해설적인 종교적 담론에서 배제되었다.

5. 시각 문화와 공연 문화로서의 성서 번역

다중양식적 접근방식의 일부로서 번역가들과 번역 자문위원들이 (예컨대 이미지의 사용이나 공연의 사용처럼) 비인쇄 매체를 우선시하고 그 기

44) J. Maxey, “Translation”, Tom Thatcher, et al., eds., *The Dictionary of Bible and Ancient Media* (London: Bloomsbury, 2017), 432.

45) M. Winedt, “The Impact of the KJV in Caribbean Bible Translation Work: An Exploratory Introduction”, *The Bible Translator* 64 (2013), 185-203.

술을 연마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수어로 번역하기 위해서는 번역의 결과로서나 수화의 본질적 일부로서나, 심지어 성서 구절들과 다른 해석 과정의 분석에 있어서나 시각 자료의 사용이 핵심이다.(참조, 그림 4) <성서와 고대 매체 사전>에서 본피글리오(R. Bonfiglio)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성서학과 시각문화학의 결합에 대해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지만 두 분야의 결합에는 몇 가지 분명한 이점이 있다. 우선 가장 일반적으로 고대 종교든 현대 종교든 시각적 영역을 배제한 ‘종교’의 정의를 상상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역사가 맥다넬(C. McDannell)의 주장에 따르면, “순수한 종교”는 단지 말씀과 신조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나 물체, 건축, 미술, 풍경으로 표현되고 구현되었다.”⁴⁶⁾ 이처럼 종교의 형성과 표현에서 중요하다면, 시각 문화는 그 역사적 콘텍스트가 무엇이든지 간에 종교 연구에서 중요시되어야 한다.⁴⁷⁾

<그림 4> 페루에서의 수어 번역



우리의 청각 기반의 상당 부분은 청각장애인 공동체와는 그 형태가 다르다. 그러나 서양과 남반구의 저개발국 모두 시각화를 통한 의미 형성의 필요성을 점차 깨닫고 있다.⁴⁸⁾ 성서의 공연과 관련하여 성서 주석학과 해석학에서 그 유용성을 보여주는 훌륭한 예들이 많다.⁴⁹⁾ 더욱이 우리 중 일부

46) C. McDannell, *Material Christianity: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in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272.

47) R. P. Bonfiglio, “Visual Culture”, T. Thatcher, et al., *The Dictionary of the Bible and Ancient Media*, 445.

48) Y. W. Smith, “Bible Translation and Ancient Visual Culture: Divine Nakedness and the ‘Circumcision of Christ’ in Colossians 2:11”, A. C. Niang and C. Osiek, eds., *Text, Image, and Christians in the Greco-Roman World: A Festschrift in Honor of David Lee Balch*, Princeton Theological Monograph 176 (Eugene, OR: Pickwick, 2012), 320-341.

49) 참조, D. Carr, *Writing on the Tablets of the Heart: Origins of Scripture and Literature*

는 텍스트를 이해하고 문화적 오해를 드러내기 위한 교육적 도구로서 성서 구절들을 공연할 때 번역가들과의 작업이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음을 보았다. 공연은 또한 텍스트에 대해 좀 더 비판적, 문화적으로 참여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도구로 입증되었다.⁵⁰⁾ 주석 자문위원을 포함하여 번역 공동체는 매체의 사용과 효과를 인식하고 도서 문화에 대한 수 세기에 걸친 가정들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연 연습은 텍스트 분석과 원문에 가까운 번역 찾기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⁵¹⁾ 그레이엄(W. Graham)이 이를 정확하게 지적했다.

흔히 여전히 매우 구술적인 비서양 문화를 다룰 때뿐만 아니라 19세기 이전의 우리 자신의 문화를 연구할 때에도 [우리는] 책과 읽기와 쓰기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읽기의 본래적이고 기본적인 구술성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특별한 콘텍스트 바깥에서 문서 텍스트가 근본적으로 구술적 기능을 발휘하게 하는 열쇠이다.⁵²⁾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T. Boomershine, *The Messiah of Peace: A Performance-Criticism Commentary on Mark's Passion-Resurrection Narrativ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12 (Eugene, OR: Cascade, 2015); P. J. J. Botha, *Orality and Literacy in Early Christianity*,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5 (Eugene, OR: Cascade, 2012); J. Dewey, *The Oral Ethos of the Early Church: Speaking, Writing, and the Gospel of Mark*,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8 (Eugene, OR: Cascade, 2013); E. R. Wendland, *Finding and Translating the Oral-Aural Elements in Written Language: The Case of the New Testament Epistles* (New York: Edwin Mellen Press, 2008); E. R. Wendland, *Orality and the Scriptures: Composition, Translation, and Transmiss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13); W. Doan and T. Giles, *Prophets, Performance, and Power: Performance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T&T Clark, 2005); H. E. Hearon and P. Ruge-Jones, eds., *The Bible in Ancient and Modern Media: Story and Performanc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1 (Eugene, OR: Cascade, 2009); D. Rhoads, "Performance Criticism (Biblical)", T. Thatcher, et al., eds., *The Dictionary of the Bible and Ancient Media* (London: Bloomsbury, 2017); J. Maxey and E. R. Wendland, eds., *Translating Scripture for Sound and Performance: New Directions in Biblical Studie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6 (Eugene, OR: Cascade Books, 2012); P. S. Perry, *Insights from Performance Criticism*, Insights: Reading the Bible in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apolis: Fortress, 2016). 성서 공연비평에 대한 연구 및 상호작용 플랫폼이 있다. <http://www.biblicalperformancecriticism.org>.

50) M. Winedt, "Translation as Performance and Engagement: Performing Philemon from a Modern Caribbean Perspective", *The Bible Translator* 66 (2015), 3-23.

51) 수어 번역에서 비디오 녹화, 조명, 카메라 기술은 번역 과정의 핵심적 부분이다. 문서 텍스트의 오디오 녹음에서 억양, 크기, 음색, 그리고 음향효과를 통한 극화는 이러한 번역 양식에서 주변부가 아니라 중심부를 차지한다.

52) W. A. Graham, *Beyond the Written Word: Oral Aspects of Scripture in the History of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33.

한 텍스트의 형식이 자신이 속한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로 자마йка 환경에서의 성서 번역을 들 수 있다. 자마йка 크리올어의 지배적인 구술적 성격 때문에 크리올어 사용자들은 이 언어를 인쇄라는 형식으로 사용하기를 거부해 왔다. 흥미롭게도, 그들 중 영어처럼 매우 복잡한 철자법을 익힌 일부 사람들은 자마йка 크리올어 신약성서 역본에서 사용되는 훨씬 더 쉽고 논리적인 캐시디 철자(Cassidy spelling)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거부는 제임스왕역본(KJV)처럼 ‘가짜 원전’ 개념이나 공식적인 영어 교육(이것이 도움이 되는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에 근거할 뿐만 아니라 정체성과 권력 개념과도 관련된다. 훌륭한 영어 실력까지 갖춘 많은 크리올어 사용자들이 크리올어만 사용하는 사람들과 완전히 동일시되기를 원치 않는다.

6. 다중양식의 도전

기호 간 번역은 언어 사용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문자 매체를 통해서 다른 문화에 패권적으로 형식을 부과하는 데 내재한 편견을 드러냈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여러 문화와 인간 집단에 일차적 구술성(primary orality)⁵³⁾이라는 어떤 고정된 개념을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모국어보다 넓은 의사소통 언어에서 높은 문맹률을 보이는 많은 문화들은 문화적 현상으로서의 쓰기와 그 집단의 정체성 사이에 복잡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카리브해 지역에서는(영어권과 비영어권 지역 모두에서) 제임스왕역본이 큰 영향력을 행사해 왔는데, 이 역본이 가짜 원전으로서 최고 통치자로 군림했다. 이것은 번역이란 단지 의미가 형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형식과 의미가 결합하여 육화되는 것임을 보여준다. 어떤 의사소통 매체라도 본질적으로 고유의 물질성과 연결된다. 만약 번역이 이 사실을 무시한다면 위험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번역이 계속해서 인쇄 텍스트를 생산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구술적/청각적, 시각적, 그리고 하이퍼링크로 연결되는 사이버 번역을 무시하거나 주변화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성서 번역 자문 기관이 각 공동체의 번역가들을 더 잘 지원하려면 성서 메시지가 육화될 때 띠는 물질성의 다양한 형식을 잘 알아야 한다.⁵⁴⁾

53) [역주] 문자나 인쇄가 존재하지 않는 문화의 구술성을 일컫는 용어로 원시적 구술성이라고도 한다.

54) 청각 자문이 어떤 식으로든 수어 프로젝트의 주석 작업에 참여하려면 비디오 편집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조금이라도 갖추어야 한다. 그러한 기술적 역할을 맡은 사람이 청각장애인

<그림 5> 다양한 매체와 시각적, 구술적 양식을 결합한 수난 사회 공연
(쿠라사오 동부 새생명교회)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히 사고방식의 추상적 변화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 기호학에 대한 우리의 집중뿐만 아니라 수용성, 품질 관리, 충성도가 모두 함께 작용한다. 충성은 본질적으로 무엇이 ‘원전’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공동체의 작업가설과 관련된다. 이것은 단순히 원천 언어에 대한 충성과 대상 언어의 의미 표현이 대결하는 문제가 아니다. 자신의 기호 현상, 즉 자신의 의미 형성 과정을 생산하는 물질성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종이 위의 잉크의 형태든, 손과 얼굴과 몸과 (억양, 음의 높이, 음질, 속도, 음색과 같은) 청각적 특징들을 이용한 삼차원적 신호 전달의 형태든 다양한 형식으로 발생한다. 따라서 이것은 무서운 이야기에 나오는 유령처럼 단순히 추상적이고 육화되지 않은 의미가 ‘몸’을 찾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기호학적 관점에서 ‘육화되지 않은 의미’(disembodied meaning)는 없다. 선형적인 사회적, 인지적 콘텍스트에서 유래한 의미가 언제나 존재한다. 이러한 의미는 같은 기호 체계 내에서 변형되거나(예, 언어 간 번역) 문서화된 성서 텍스트를 극장에서 공연하는 경우처럼 새로운 기호 체계 안에서 재기호화되거나 우선 순위가 결정될 수 있다.(참조, 그림 5)

다중양식 이론은 사회적 콘텍스트 안에서 여러 양식의 결합이 보다 총체적으로 의미를 생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관점에서 모든 형식의 의사소통에 접근한다. 전통적인 성서 번역에서 인쇄된 텍스트는 삽화나 다른 보완 자료(paratextual material)와 결합하여 그 자체의 함의를 생산하는데, 그 함

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의는 청중에 따라 달라진다. 그래서 같은 책이 세속적 언어애호가에게는 문학 작품이 되고, 일부 신자에게는 전례서가 되며, 읽고 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영적 보호를 위한 부적처럼 심지어 상징적 의미를 떨 수도 있다.

텍스트와 텍스트의 공연 및 번역에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들에 개입할 필요가 있다. 문학비평, 자료비평, 본문비평 같은 전통적인 형태의 비평을 폐지하자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텍스트 자체에 있는 힘의 역학을 노출하고, 텍스트의 구원적 요소들을 발굴하며, 그러한 요소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이러한 힘의 역학은 가령 텍스트의 가부장제적 본질 그리고 특정 텍스트와 그에 대한 해석이 남성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데 사용되어 온 방식—타당하지 않은 방식—과 관련된다.

더욱이 인쇄 패러다임 및 인쇄 문화에서 온 모든 성서 번역 관련자들은 최종 사용자의 문화적 현실에 근거하여 품질 평가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주석학적, 언어학적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전지전능한 권위자가 아니라 집단의 인식론에 기여한다. 그들의 전문지식은 번역팀이 다양한 유형의 텍스트를 생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공구상자의 일부이다. 주석학적, 언어학적 조언을 담당하는 번역 자문위원들만 번역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번역은, 번역가 자신과 주석학적 고문 모두에 의해 그 내용과 매체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바라건대 최소한 지역 공동체 일부의 지지를 받을 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여겨진다. 사회기호학적 접근은 구조적 방식으로 권력과 정체성 문제를 드러낸다. 번역팀을 돕는 것은 일방통행이 아니다. ‘조력자’ 역시 자신이 돕는 번역가들로부터 도움을 받는다. 형식과 의미는 결합하여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조하며, 그러한 관계 안에서 모두가 하나의 신앙 공동체, 지식 공동체가 된다.

사실 번역가들은, 청각장애인이든 아니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며 보이지 않게 되어서도 안 된다. 그들이 재창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바로 그 기호학적 신호 체계가 권력 관계와 그 영역에서 전형적인 구체적 특징들을 수반한다. 결국, 성서 번역은 성장 중인 상황 신학(contextual theology)과 지역 교회의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증개할 수 있다.⁵⁵⁾

55) 토착어를 통한 토착화 신학(indigenous theology)의 촉진에 대해서는 참조, K. Bediako, “The Doctrine of Christ and the Significance of Vernacular Terminolog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22:3 (1998), 110-111; W. E. Bivin, “Mother-Tongue Translations and Contextualization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4:2 (2010), 72-76; TIPS project (J. Zetsche, “Translation Insights and Perspectives [TIPS]”, 2019, <https://map.bloomfire.com/posts/3566518-translation-insights-and-perspectives-tips>). TIPS project는 번역에 대한 통찰들을 모으고 제시하기 위한 전자 플랫폼(<http://tips.translation.bible/>)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전세계의 여러 언어와 공동체의 관점에서 상황 신학적 성찰의 씨를

더 깊은 성찰과 연구를 위한 몇 가지 도전 과제들이 있다.

1.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성서 내용에 참여시키고, 이를 통해 구원을 가져오는 상황 신학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가?
2. 성서 제시의 일부 형식에 내재한 식민주의적 본질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3. 각 공동체에게 의미 있는 형식들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가?
4. 어떻게 하면 공동체가 한 역본을 선택하고 그것이 최고의 번역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가?
5. 어떻게 하면 공동체에 하향식으로 부자연스럽게 구술성을 부과하는 것을 피할 수 있는가?
6. 각 매체의 본질적 가능성과 한계는 무엇이며, 그것들은 어떻게 성서 번역 작업에 영향을 미치는가?
7. 어떻게 공연을 특정 콘텍스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번역으로 확증할 수 있는가?
8. 성서를 번역할 때 ‘이상적 원전’의 개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9. 어떻게 공동체의 번역에 대한 기대에 부응함과 동시에 그것을 확대할 수 있는가?
10. 어떻게 하면 이전의 경직된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형식-의미 구분을 계속해서 생산적인 교육 도구로 사용할 수 있는가?

7. 결론

“이것이 내게 아무 말도 하지 않는구나. 아무것도 들리지 않아.” 위대하고 고귀한 잉카인이 옳았다. 역사적으로 메시지의 형식, 즉 메시지의 물질성은 서로 다른 인간 집단들에게 계속해서 장애가 되곤 했다. 성서는 이 잉카인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 식민주의적 지배 욕구의 일환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이다. 이는 예나 지금이나 자민족 중심적이며 소외를 일으킨다. 잉카인은 그 책과 관계를 맺을 수 없었고, 그 책은 인간으로서의 그의 정체성을 정당화하지 않았다. 사실, 그것은 심지어 정복자의 의도도 아니었다. 우리가 텍스트를 오직 한 가지 형식으로만 묶어둘 때, 텍스트가 지닌 변화의 힘은 제한된다. 번역이 공동의 상호작용을 일으키고 메시지가 다양한 매체 형식으로 표현될 때, 전체 사업은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방식으로 인간 집

뿌린다.

단들을 보이게 만들 것이다. 복음서에서 구원은 영적 사업일 뿐만 아니라 분명하게 사회적, 문화적 영향력을 행사한다.

신명기 6:4-8의 셰마(*shema*)는 히브리인들에게 말씀을 쓰고, 읊고, 기억하고, 몸에 지니며, 시각적 신호로서 문설주에 기록하라고 가르쳤다. 구술적, 청각적, 시각적, 촉각적인 것이 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 두루마리, 코텍스, 수어 비디오, 오디오, 또는 이와 같은 것들이 공연되는 어떤 형식과도 동일시될 수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간이다. 사실, 성서 번역에서 형식과 의미가 지닌 변화의 힘에 대한 이론적 숙고는 반드시 그리스도론으로 이어진다. 왜냐하면 성서 번역은 끊임없는 성육신 외에 다른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히브리서에 담긴 오래된 설교의 저자가 이를 유려하게 표현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 (히 1:1-2)

사실, 이 논문은 우리 시대의 하나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며, 그것이 다중양식적이라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다.

<주제어>(Keywords)

기호 간 번역, 형식과 의미, 번역 이데올로기, 공연, 다중양식.

intersemiotic translation, form and meaning, translation ideology, performance, multimodality.

(투고 일자: 2022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22년 8월 26일, 게재 확정 일자: 2022년 10월 19일)

<참고문헌>(References)

- Bediako, K., “The Doctrine of Christ and the Significance of Vernacular Terminology”,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22:3 (1998), 110-111.
- Bediako, K., *Theology and Identity: The Impact of Culture upon Christian Thought in the Second Century and in Modern Africa*, Oxford: OCMS, 1999.
- Benson, J. D. and Greaves, W. S., eds., *Systemic Perspectives on Discourse*, Vol. 1, Norwood, NJ: Ablex, 1985, 1-15.
- Bivin, W. E., “Mother-Tongue Translations and Contextualization in Latin America”,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34:2 (2010), 72-76.
- Bonfiglio, R. P., “Visual Culture”, T. Thatcher, et al., *The Dictionary of the Bible and Ancient Media*, London: Bloomsbury, 2017, 444-450.
- Boomershine, T., *The Messiah of Peace: A Performance-Criticism Commentary on Mark’s Passion-Resurrection Narrativ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12, Eugene, OR: Cascade, 2015.
- Botha, P. J. J., *Orality and Literacy in Early Christianity*,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5, Eugene, OR: Cascade, 2012.
- Cargill, M., “The Patois Bible”, *The Sunday Gleaner*, June 30, 1996, 9A.
- Carr, D., *Writing on the Tablets of the Heart: Origins of Scripture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5.
- Dewey, J., *The Oral Ethos of the Early Church: Speaking, Writing, and the Gospel of Mark*,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8, Eugene, OR: Cascade, 2013.
- Doan, W. and Giles, T., *Prophets, Performance, and Power: Performance Criticism of the Hebrew Bible*, New York: T&T Clark, 2005.
- Goerling, F., “Cautions concerning Dynamic Equivalence”, *Notes on Translation* 10:3 (1996), 49-57.
- Graham, W. A., *Beyond the Written Word: Oral Aspects of Scripture in the History of Relig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7.
- Gutt, E. A., *Translation and Relevance: Cognition and Context*, Manchester: St. Jerome, 2000.
- Halliday, M. A. K., *Complementarities in Language*, Beijing: Commercial Press, 2008.
- Halliday, M. A. K., *Language as Social Semiotic: The Social Interpretation of Language and Meaning*, London: Edward Arnold, 1978.

- Halliday, M. A. K., "Systemic Background", J. J. Webster, ed., *On Language and Linguistics*,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3, London: Continuum, 2003, 185-198
- Halliday, M. A. K., "Text as Semantic Choice in Social Contexts", J. W. Jonathan, ed., *Linguistic Studies of Text and Discourse*, Collected Works of M. A. K. Halliday, Vol. 2, London: Continuum, 2002, 23-81
- Halliday, M. A. K. and Hasan, R., *Language, Context, and Text: Aspects of Language in a Social-Semiotic Perspective*, Geelong, Victoria: Deakin University Press, 1985;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 Hearon, H. E., "The Implications of Orality for Studies of the Biblical Text", R. A. Horsley, J. A. Draper, and J. M. Foley, *Performing the Gospel: Orality, Memory, and Mark*, Minneapolis: Fortress, 2006.
- Hearon, H. E., "The Interplay between Written and Spoken Word in the Second Testament as Background to the Emergence of Written Gospels", *Oral Tradition* 25 (2010), 57-74.
- Hearon, H. E. and Ruge-Jones, P., eds., *The Bible in Ancient and Modern Media: Story and Performanc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Series 1, Eugene, OR: Cascade, 2009.
- Holcomb, T. K., *Introduction to American Deaf Cul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 Hurtado, L. W., "Correcting Iverson's 'Correction'", *New Testament Studies* 62:2 (2016), 201-206.
- Hurtado, L. W., "Oral Fixation and New Testament Studies? 'Orality,' 'Performance' and Reading Texts in Early Christianity", *New Testament Studies* 60 (2014), 321-340.
- Jakobson, R., "On Linguistic Aspects of Translation", Reuben Arthur Brower, ed., *On Translation*,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959, 232-239.
- Kress, G. and Van Leeuwen, T., *Multimodal Discourse: The Modes and Media of Contemporary Communica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Kress, G. and Van Leeuwen, T., *Reading Images: The Grammar of Visual Design*, 2nd edition, London: Routledge, 2006.
- Lee, M. E. and Scott, B. B., *Sound Mapping the New Testament*, Salem, OR: Polebridge, 2009.
- Leeuwen, T. V., *Discourse and Practice: New Tools for Critical Discourse Analysis*,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8.
- Leeuwen, T. V., *Speech, Music, Sound*, London: Macmillan, 1999.
- Lowden, J., “Early Christian Book as Visual Argument”, W. E. Klingshirn and L. Safran, eds., *The Early Christian Book*, CUA Studies in Early Christianity, Washington, DC: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2007, 13-47.
- Maxey, J., *From Orality to Orality: A New Paradigm for Contextual Translation of the Bible*,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Eugene, OR: Cascade, 2009.
- Maxey, J., “Hostile Hosts and Unruly Guests: Bible Translation as Hospitality and Counterinsurgency”, Dallas, TX: Beekman Lecture presented at the Bible Translation Conference, 2011, <https://map.bloomfire.com>.
- Maxey, J., “Translation”, Tom Thatcher, et al., eds., *The Dictionary of Bible and Ancient Media*, London: Bloomsbury, 2017, 430-437.
- Maxey, J. and Wendland, E. R., eds., *Translating Scripture for Sound and Performance: New Directions in Biblical Studies*, Biblical Performance Criticism 6, Eugene, OR: Cascade Books, 2012.
- McDannell, C., *Material Christianity: Religion and Popular Culture in America*,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5.
- Metzger, B. M., *A Textual Commentary on the Greek New Testament: A Companion Volume to the United Bible Societies' Greek New Testament (4th Rev. Ed.)*, 2nd edition, London: United Bible Societies, 1994.
- Moschini, I., “Interview with Theo van Leeuwen”, *LEA-Lingue e letteratura d'Oriente e d'Occidente* 3 (2014), 203-222, <http://dx.doi.org/10.13128/LEA-1824-484x-15193>.
- Nida, E. and Charles, T., *The Theory and Practice of Translation*, Leiden: Brill, 1969.
- O'Halloran, K. L., Tan, S., and Wignell, P., “Intersemiotic Translation as Resemiotisation: A Multimodal Perspective”, J. Fontanille, M. Sonzogni, and R. Troqe, eds., *Translating: Signs, Texts, Practices// Traduire: Signes, Pratiques, Textes, Signata: Annales des sémiotiques//Annals of Semiotics* 7 (2016), 199-229, <https://doi.org/10.4000/signata.1223>.
- Perry, P. S., *Insights from Performance Criticism*, Insights: Reading the Bible in the Twenty-First Century, Minneapolis: Fortress, 2016.
- Reiss, K. and Vermeer, H. J., *Grundlegung einer allgemeinen Translationstheorie*, Tübingen: Niemeyer, 1984; 1991.

- Rhoads, D., “Performance Criticism (Biblical)”, T. Thatcher et al., eds., *The Dictionary of the Bible and Ancient Media*, London: Bloomsbury, 2017, 281-289.
- Robinson, D., ed., *The Pushing-Hands of Translation and Its Theory: In memoriam Martha Cheung, 1953-2013*, Routledge Advances in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Studies, New York: Routledge, 2016.
- Sanz, M. J. P., *Multimodality and Cognitive Linguistics*, Amsterdam: Benjamins, 2015.
- Sloetjes, H. and Wittenburg, P., “Annotation by Category-ELAN and ISO DCR”, N. Calzolari, et al., eds., *Proceedings of the 6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Language Resources and Evaluation (LREC)*, European Language Resources Association (2008), 816-820, <http://www.lrec-conf.org>.
- Smith, Y. W., “Bible Translation and Ancient Visual Culture: Divine Nakedness and the ‘Circumcision of Christ’ in Colossians 2:11”, A. C. Niang and C. Osiek, eds., *Text, Image, and Christians in the Greco-Roman World: A Festschrift in Honor of David Lee Balch*, Princeton Theological Monograph 176, Eugene, OR: Pickwick, 2012, 320-341.
- Tkacz, C. B., “‘Labor Tam Utilis’: The Creation of the Vulgate”, *Vigiliae Christianae* 50:1 (1996), 42-72.
- Van Dijk, T. A. and Petofi, J. S., eds., *Grammars and Descriptions: Text Theory and Text Analysis*, New York: Walter de Gruyter, 1977, 176-225.
- Vearncombe, E. K., “On Headaches, Gospel Codices, and the Interpretation of ‘Literate Media’”, W. E. Arnal, et al., eds., *Scribal Practices and Social Structures Among Jesus Adherents: Essays in Honour of John S. Kloppenborg*, Bibliotheca Ephemeridum Theologicarum Lovaniensium 285, Leuven: Peeters, 2016, 387-404.
- Wendland, E. R., *Finding and Translating the Oral-Aural Elements in Written Language: The Case of the New Testament Epistles*, New York: Edwin Mellen Press, 2008.
- Wendland, E. R., *Orality and the Scriptures: Composition, Translation, and Transmission*, Dallas: SIL International, 2013.
- Winedt, M., “The Impact of the KJV in Caribbean Bible Translation Work: An Exploratory Introduction”, *The Bible Translator* 64 (2013), 185-203.
- Winedt, M., “Translation as Performance and Engagement: Performing Philemon from a Modern Caribbean Perspective”, *The Bible Translator* 66 (2015), 3-23.

Xerez, F. D., *Verdadera relación de la conquista del Perú y provincia del Cuzco llamada la Nueva Castilla*, Seville: Bartolomé Perez, 1534, <https://archive.org/details/verdaderarelacio00xere/>.

Zetsche, J., “Translation Insights and Perspectives (TIPs)”, 2019, <https://map.bloomfire.com/posts/3566518-translation-insights-and-perspectives-tips>.

<초록>

성육신으로서의 성서 번역 — 형식과 의미를 통한 변화의 힘 —

성서 번역은 도덕적, 영적, 문화적 주장이나 책임과 분리된 중립적 활동이 아니다. 형식은 종종 의미를 왜곡하지만, 다행히도 의미는 종종 서로 다른 문화들에서 새로운 융합 형식을 창조한다. 이 논문은 다중양식적 관점에서 성서 번역의 성육신적 측면을 이해해야 할 필요성을 논한다. 첫째, 형식과 의미 사이의 변증법적 관계에 대한 철학적, 신학적 설명이 필요하다. 둘째, 가령 동일한 다중양식적 실재의 일부로서 구술 번역(oral translation)과 문서 번역(written translation)처럼 구체화된 언어수행(embodied performance)의 다양한 유형들 사이의 관계를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서 번역이 변화의 힘을 발휘하려면 다양한 방식의 성서 이용을 촉진해야 한다. 다중양식 이론(multimodal theory)은 번역의 모든 유형과 양식을 동등하면서도 개별적인 표현으로 다루는 귀중한 도구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다른 문화들과 인간 집단들, 신앙 공동체들을 인정할 수 있게 한다.